

12월 14일부터, 청소년이 일반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청소년은 청소년카드, 어린이는 어린이카드만 사용 계도기간 10월 14일(월)~12월 13일(금)까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탑승 시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일반(어른)카드 사용으로, 요금할인 전환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청소년이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2월 14일(토)부터 일반요금을 부과한다.

12월 14일(토)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요금인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850원(400원)이다.

그동안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일반(어른)카드를 시내버스 요금 결제 시 청소년의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해 주었으나, 신분증 확인 과정 등이 발생하고 탑승 지연 원인이 되고 있어 12월 13일(금)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를 통해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4일(토)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월 2만 3,000건

정도 청소년이 일반카드를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역사, 교통카드판매가맹점, 편의점(GS25-대구·경북, emart24-전국)에서 구매 가능하며, 교통카드 충전은 휴대폰과 교통카드 구매장소에서 가능하다. 휴대폰 충전은 iM뱅크 및 스마트치 앱을 설치해 충전하면 된다.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12세), 청소년용(13세~만 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류이며, 청소년·어

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인터넷 등록은 iM유페이 홈페이지(<https://www.imupay.co.kr>)에 접속해 '카드등록', '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에서 청소년·어린이 본인의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ARS(전화)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 080-427-2342(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



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금)까지는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우리 지역의 소식을 푸른방송 제보에 전해주세요

푸른방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푸른방송 제보>를 통해 전하고 싶은 사건/사고/뉴스 등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주세요.

카카오톡 <푸른방송 제보>

-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서 푸른방송 제보를 검색하세요!
- 채널 추가 후 1:1 채팅하기로 24시간 제보 가능!

이메일: gcs_jebo@gcs.co.kr
전 화: 053-551-2002 / 053-572-6000

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상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 '달비골 마을축제'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토)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달비골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30년간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 김유정 관장은 “지난 30년간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복지관의 역사를 기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객원기자

국민연금 Q&A

Q.폐업(휴업) 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폐업(휴업) 사실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고지 중단)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거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민없이 1355